

일부도시영세민의 가족계획 실태에 관한 연구

노 순 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지도 Ruth G. Stewart 교수>

차 례

- I. 서 론
- II. 연구대상 및 방법
- III. 연구 결과
 - A. 일반적 특성
 - B. 가족계획
 - 1. 지식
 - 2. 태도
 - 3. 실천
 - C. 이상 자녀수
 - D. 인공유산
- IV. 고 안
- V.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 영문 초록

I. 서 론

인류는 가속화되는 사회변동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인구문제는 의학이나 보건문제를 벗어나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지 오래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취급되고 있다.¹

우리나라는 1962년 가족계획을 국가의 인구정책으로 채택하고 범국가적 사업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1960년 당시 2.9%였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970년에는 2.0%로 감소되었지만² 전문적 평가결과 앞으로 가족계획사업에 몇가지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그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도시 특히 대도시영세민의 높은 출산력과 저조한 가족계획사업이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도시 영세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가족계획사업의 강화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 영세민의 가족계획실태에 관한 연구는 사업수행에 앞서 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나 평가연구는 많았지만 도시 영세지역에 대한 현재의 가족계획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었다.

1967년 권³의 연구는 도시 영세민의 가족계획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적인 제변동을 감안하면 본 조사연구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된다.

본 연구는 대도시 빈민가의 가족계획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연희 1.2동 내의 영세지역을 조사지역으로 택하였다. 연희동은 약 65,000명의 인구가 상·중·하·빈민의 4계층으로 분포되어 단면적인 사회계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다.⁴ 이 중 빈민계층의 인구가 본 연구의 대상인구로서 이들이 등록되어 있는 연희지역 보건관리소의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조사지역 대상부인의 (1) 일반적 특성 (2)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3) 이상 자녀수 (4) 인공유산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으

1) 양재모, "인구증가와 인구 보건 및 경제문제", 간호교육과 가족계획,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 연구소, 1970, p. 30

2) 보건사회부, 가족계획사업, 1972, 4 참조.

3) 권이혁, "가족계획", 도시영세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1967 참조.

4) 윤방부, "동맥혈압에 관한 역학적 연구—연세지역을 중심으로", 연세의대 논문집, 제5권 제1호, p. 162.

며 여기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1972년 8월 당시 연희지역 보건관리소에 등록된 연희 1.2동의 영세지역 주민 4,113세대이다. 이들 4,113세대는 (1) 재산세를 내지 않고 (2) 자기 소유지에 독립주택이 없이 무허가 판자집에 거주하며 (3) 국민자로서 각 통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된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0~49세의 유배우부인 3,118명이 본 연구의 대상모집단이다.

예비조사지역으로는 흥은 1동의 무허가 판자촌을 택하였으며 20~49세의 유배부인 20명에게 질문지에 의한 면접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 내용 및 문항을 교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예비조사의 가족계획 찬성을 85%를 지수로 하여 200명으로 정하고 두작위층화추출법에 의하여 표본을 선택하였다.

조사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면접방법으로 연구자 자신이 1972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가정방문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A. 일반적 특성

1. 연령

조사대상 부인들은 연령집단별 구성으로 볼 때 25~29세가 가장 많고 (32.0%), 45~49세의 연령집단이 4.5%로 가장 적었다.

<표 1> 연령집단별 분포

연령	조사부인수	백분율 (%)
20~24	25	12.5
25~29	64	32.0
30~34	49	24.5
35~39	37	18.5
40~44	16	8.0
45~49	9	4.5
계	200	100.0

2. 교육 정도

조사대상 부인과 남편의 교육 정도는 표 2와 같고 부인이 있어 문맹이 15%이며 국민학교 졸업 학력이 59.5%로 가장 많으며 남편들의 경우 역시 국민학교만 졸업한 학력군이 35.5%로 가장 많으나 문맹은 2.0%이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 29.5%이다.

<표 2> 조사대상 부인과 그 남편의 교육정도별 분포

교육 정도	부 인		남 편	
	수	백분율 (%)	수	백분율 (%)
문맹	30	15.0	4	2.0
국민학교	12	6.0	4	2.0
국민학교 졸업	119	59.5	71	35.5
중학교 졸업	32	16.0	62	31.0
고등학교 졸업	7	3.5	50	25.0
계	200	100.0	200	100.0

3. 종교

조사대상 부인의 종교별 분포는 표 3의 같이 무교가 68%로 가장 많았다.

<표 3> 종교별 분포

종교	조사부인수	백분율 (%)
무	136	68.0
불교	28	14.0
기독교	9	4.5
신교	27	13.5
계	200	100.0

4. 거주에 관한 사항

현재 거주장소에 거주한지 2~5년 미만인 부인이 전체의 41.5%로 가장 많고 5~10년 미만 (23.0%), 1년 미만 (17.5%), 1~2년 미만 (13.0%)의 순이며 10년 이상 거주자는 5%이다.

현재 장소에 거주하기 바로 전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62%로 가장 많았으나 이 중 68%, 즉 83명의 부인은 농촌이었다(이하 농촌은 도회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칭함).

<표 4> 전거주지역별 분포

전거주지역	조사부인수	백분율 (%)
서울	124	62.0
기타 도회 지역	31	15.5
농촌	45	22.5
계	200	100.0

5. 경제

조사대상 부인의 남편의 수입을 일정한 유무로 분류하면 남편이 월급이나 고정된 수입원이 있는 부인이 25.5%이고 일일수입에 의존하는 사람이 58.5%이며 무직이 16%였다.

6. 일반적인 정보구입 방법

조사대상 부인들의 68%가 라디오를 통하여 정보를 듣고, 25.5%가 이웃을 통하여 듣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5〉 정보구입처별 분포

주요 정보원	조사부인수	백분율 (%)
라 디 오	136	68.0
신 문 잡 지	8	4.0
이 웃	51	25.5
택 레 비 전	5	2.5
계	200	100.0

〈표 6〉 연령집단별 현존 자녀수별 분포

연 령	현 존 자 녀 수							평 균
	계	0	1	2	3	4	5+	
20~29	89	8(9.0)	32(36.0)	29(32.6)	17(19.1)	3(3.3)		1.7±1.0
30~39	86		5(5.8)	18(20.9)	17(19.8)	24(27.9)	22(25.7)	3.5±1.4
40~49	25			1(4.0)	1(4.0)	7(28.0)	16(64.0)	5.6±1.0
계	200	8(4.0)	37(18.5)	48(24.0)	35(17.5)	34(17.0)	38(19.0)	3.6±1.5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B. 가족계획

1.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

조사된 부인들의 78.5%가 루프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87.0%가 먹는 피임약을 알고 있었다. 한 부인이 평균 2.3종류의 피임법을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에게 알려진 루프와 먹는 피임약을 제외하면 기타의 방법에 대하여 평균 0.6종류를 알고 있었다.

〈표 7〉 각 피임법에 대한 지식률

피 임 법	아는부인수	백분율 (%)
루 프	157	78.5
먹 는 피 임 약	174	87.0
콘 돔	33	16.5
남 자 불 임 술	31	15.5
여 자 불 임 술	14	7.0
주 기 이 용 법	18	9.0
질 정	9	4.5
주 사	7	3.5
질 외 사 정 법	7	3.5
팻 사 리	3	1.5
젤 리	1	0.5
기 타*	1	0.5

*관습적 방법

교육정도별 피임법의 종류에 대한 지식은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집단에서 평균 2.1종류,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력군에서 2.2종류, 중학교 이상 졸업한 층의 부인이 2.7종류를 알고 있었다.

또한 남자불임술에 대하여 들어본 일이 있는 156명의 부인들은 정관수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

7. 현존 자녀수

조사대상 부인의 평균 현존 자녀수는 3.6명이었고, 전체적으로 자녀 둘을 가진 부인이 24%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부인에서는 1명 자녀를 가진 부인이 36%로 가장 많고, 30대에서는 4명, 40대에는 5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이 64%로 가장 많았다.

고 있었다.

〈표 8〉 남자불임술에 대한 지식내용별 분포

지 식 내 용	조사부인수	백분율 (%)
가장 간편하다	46	29.4
성적 불구 된다	23	14.7
최약해 진다	72	46.2
기 타 *	12	9.7
계	156	100.0

* 기형아 출산 (6명), 불가역성(3명), 병생김(6명)

일반적인 피임방법의 구입처로는 77%의 부인들이 보건소를 알고 있었고 병원(8%), 약국과 상담실이 각각 6.5%로 알려져 있었으며 구입처를 모른다고 응답한 부인은 2%였다.

2.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

가족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82.5%가 찬성하였고 12.5%가 경우에 따라서 찬성, 5%가 반대하였다.

이의 연령, 교육정도 및 종교 집단별 분포는 표 9, 표 10 및 표 11 과 같다.

〈표 9〉 연령집단별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별 분포

연 령	찬 성	경우에따라	반 대	계
20~29	75(84.3)	12(13.4)	2(2.3)	89(100.0)
30~39	70(81.4)	10(11.6)	6(7.0)	86(100.0)
40~49	20(80.0)	3(12.0)	2(8.0)	25(100.0)
계	165(82.5)	25(12.5)	10(5.0)	200(100.0)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표 10〉 교육정도별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별 분포

교육도	찬성	경우에 따라	반대	계
무학	34(80.9)	8(19.1)	—	42(100.0)
국졸	101(84.8)	13(10.9)	5(4.3)	119(100.0)
중졸이상	30(77.0)	4(10.3)	5(12.7)	39(100.0)
계	165(82.5)	25(12.5)	10(5.0)	200(100.0)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표 11〉 종교 집단별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별 분포

종교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			
	찬성	경우에 따라	반대	계
무교	111(81.6)	17(2.0)	8(5.9)	136(100.0)
불교	22(78.6)	5(17.8)	1(3.6)	28(100.0)
카톨릭	9(100.0)			9(100.0)
신교	24(88.9)	2(7.3)	1(3.8)	27(100.0)
계	165(82.5)	25(12.5)	10(5.0)	200(100.0)

() 안의 숫자는 백분율 임

가족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찬성이나 반대에 관계없이 조사된 부인들은 가족계획의 장점 및 단점을 표 12와 표 13에서와 같이 응답하였다.

〈표 12〉 가족계획에 대한 찬성 이유별 분포

찬성 이유	조사부인수	백분율(%)
경제적	85	42.5
건강상	6	3.0
자녀교육상	47	23.5
적당한 자녀수 희망	60	30.0
장점없다	2	1.0
계	200	100.0

〈표 13〉 가족계획에 대한 반대이유별 분포

반대 이유	조사부인수	백분율(%)
도덕적위배	6	3.0
많은자녀희망	6	3.0
비용이든다	9	4.5
모성건강에유해	169	84.5
단점없다	8	4.0
기타*	4	2.0
계	200	100.0

* 기형아 생긴다. 배우자가 싫어한다.

가족계획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는 부인중 현재 실천하고 있지 않는 부인의 비실천 이유는 표 14와 같았다.

〈표 14〉 가족계획에 대한 찬성부인중 비실천중인 부인의 이유별 분포

비실천 이유	조사부인수	백분율(%)
부작용 경험	16	10.9
부작용 우려	10	6.8
임신중	13	8.8
폐경기	4	2.7
불임증	10	6.8
자녀원함	52	35.4
기타*	6	4.1
계	147**	100.0

* 1) 남편이 싫어한다. 2) 이미 나이가 많다.

** 2) 무응답 11명 및 실천중인 12명 제외.

3. 가족계획의 실천

현재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부인은 전체 조사부인의 21.6% 씩은 피임약을 복용하는 부인이 가장 많았다.

〈표 15〉 방법별 피임실험률

사용 피임법	조사부인수	백분율(%)
부브	10	5.0
먹는 피임약	17	8.5
콘돔	1	0.5
남자 불임술	4	2.0
여자 불임술	2	1.0
주거이동법	4	2.0
질외사정법	3	1.5
질	1	0.5
계	42	21.0

〈표 16〉 피임중단 부인의 중단이유별 분포

중단 이유	조사부인수	백분율(%)
부작용	34	73.0
사고임신	7	15.2
자녀원해	3	6.5
남편이 반대	2	5.3
계	46	100.0

〈표 17〉 피임중단 부인의 중단결과별 분포

중단 결과	조사부인수	백분율(%)
임신안됨	13	28.3
임신됨	(33)	(71.7)
출산	17	37.0
자연유산	1	2.1
인공유산	9	19.6
임신중	6	13.0
계	46	100.0

과거에 1번 이상 어떤 종류의 피임법이라도 사용해 본 일이 있는 부인은 현재 실천중인 부인을 포함하여 전체의 40%였고,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사용하다가 중단한 일이 있는 부인은 전체의 23%이었는데 이들의 중단이유와 중단결과는 표 16, 표 17과 같다.

C. 이상 자녀수

조사된 부인의 평균 이상 자녀수는 3.5명으로 남아

가 2.1명, 여아가 1.4명이었고 2남1녀를 원하는 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3남2녀였다. 조사된 부인의 이상 자녀수별 분포는 자녀 3명을 원하는 율이 43.5%로 가장 높고 4명(26.5%), 5명(15.5%), 2명(11%), 6명(2%), 1명(1%), 10명(0.5%)의 순이었다.

이상 자녀수의 연령집단별 경향은 표 18과 같다.

<표 18> 연령집단별 이상 자녀수별 분포

연 령	이 상 자 녀 수					계	평 균
	1	2	3	4	5+		
20~29	2(2.0)	13(15)	36(43)	26(29)	9(11)	89(100)	3.3±0.9
30~39		7(8)	38(44)	21(24)	20(24)	86(100)	3.6±1.1
40~49		2(8)	10(40)	6(24)	7(28)	25(100)	4.0±1.6
계	2(1)	22(11)	87(43.5)	53(26.5)	36(18)	200(100)	3.5±1.2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표 19> 교육정도별 이상 자녀수별 분포

교 육 정 도	이 상 자 녀 수					계	평 균
	1	2	3	4	5+		
무 학		3(7.2)	13(31.0)	11(26.1)	15(35.7)	42(100.0)	3.9±1.2
국 출	2(2.0)	9(8.0)	57(46.0)	32(27.0)	19(17.0)	119(100.0)	3.5±1.2
중 출 이상		10(25.6)	17(43.6)	10(25.6)	2(5.2)	39(100.0)	3.1±0.8
계	2(1)	22(11)	87(43.5)	53(26.5)	36(18)	200(100.0)	3.5±1.2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표 20> 딸들을 가졌을 때의 교육정도별 추가출산 희망 유무별 분포

교 육 정 도	희 망	불 희 망	계
무 학	38(90.5)	4(9.5)	42(100.0)
국 출	102(85.7)	17(14.3)	119(100.0)
중 출 이상	31(79.5)	8(20.5)	39(100.0)
계	171(85.5)	29(14.5)	200(100.0)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표 21> 딸 아들 한명씩을 가졌을 때의 교육 정도별 추가출산희망 유무별 분포

교 육 정 도	희 망	불 희 망	계
무 학	22(52.4)	20(47.6)	42(100.0)
국 출	65(54.6)	54(45.4)	119(100.0)
중 출 이상	20(51.3)	19(48.7)	39(100.0)
계	107(53.5)	93(46.5)	200(100.0)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또한 이상 자녀수의 크기는 교육정도에 따라 적어지는 경향이였다.

한편 두자녀갓기운동에 대한 대상부인들의 태도는 딸만 둘 가지게 되는 경우에 85.5%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53.5%의 부인이 추가출산을 희망하였으며 이의 교육정도별 분포는 표 20 및 표 21과 같다.

D. 인공유산

조사대상 부인 가운데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192명의 부인중 현존 막내자녀의 임신이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대답한 부인은 42%로서 임신중에 인공유산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표 22와 같다.

<표 22> 원하지 않았던 끝자녀 임신중에 인공유산을 안했던 이유별 분포

이 유 별	조사부인수	백분율(%)
기왕 생겼으니까	29	36.1
도덕적 위배	3	3.8
건강 상	14	17.5
비용이 없어서	23	28.8
주 위 반 대	11	13.8
계	80	100.0

또한 앞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율 하게 될 경우에 69.5%의 부인이 인공유산을 하겠다고 대답하였고 14.5%가 경우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였으며 16%가 반대하였다. 이의 교육정도별 및 종교집단별 비율의 분포는 표 23 및 표 24와 같다.

〈표 23〉 교육정도별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별 분포

교육정도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			
	찬성	경우에 따라	반대	계
무학	28(66.7)	5(11.9)	9(21.4)	42(100.0)
국졸	88(73.9)	15(12.6)	16(86.5)	119(100.0)
중졸	23(59.0)	9(3.1)	7(82.1)	39(100.0)
계	139(69.5)	29(14.5)	32(16.0)	200(100.0)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표 25〉 연령집단별 인공유산 경험율의 분포

연령집단	인공유산 경험률				평균
	0	1	2+	계	
20~29	68(76.4)	17(19.1)	4(4.5)	89(100.0)	0.3±1.6
30~39	54(62.8)	16(18.6)	16(18.6)	86(100.0)	0.7±1.3
40~49	9(36.0)	6(24.0)	10(40.0)	25(100.0)	1.7±1.9
계	131(65.5)	39(19.5)	30(15.0)	200(100.0)	0.7±1.4

$\chi^2=23.046$ $P=0.0003$ D.F.=4.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인공유산 경험율의 교육정도 및 종교집단별 비율은 표 26 및 표 27과 같다.

〈표 26〉 교육정도별 인공유산 경험율의 분포

교육정도	인공유산 경험률				평균
	0	1	2+	계	
무학	27(64.3)	9(21.4)	6(14.7)	42(100.0)	0.7±1.3
국졸	77(64.6)	22(18.6)	20(16.8)	119(100.0)	0.7±1.5
중졸이상	27(69.5)	8(20.3)	4(10.2)	39(100.0)	0.5±1.4
계	131(65.5)	39(19.5)	30(15.0)	200(100.0)	0.7±1.4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표 27〉 종교집단별 인공유산 경험율별 분포

종교	인공유산 경험율				평균
	0	1	2+	계	
무교	92(67.6)	25(18.4)	19(14.0)	136(100.0)	0.6±1.3
불교	18(64.3)	3(10.7)	7(25.0)	28(100.0)	1.1±1.9
기독교	21(58.3)	11(30.6)	4(11.1)	36(100.0)	0.6±1.1
계	131(65.5)	39(19.5)	30(15.0)	200(100.0)	0.7±1.4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표 24〉 종교집단별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별 분포

종교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			
	찬성	경우에 따라	반대	계
무교	94(69.0)	21(15.5)	21(15.0)	136(100.0)
불교	14(67.8)	4(14.3)	5(17.9)	28(100.0)
기독교	26(72.2)	4(11.1)	6(16.7)	36(100.0)
계	139(69.5)	29(14.5)	32(16.0)	200(100.0)

()안의 숫자는 백분율임.

조사대상 부인의 34.5%가 실제로 1-6회의 인공유산을 경험하였고 한 부인이 평균 0.7회의 인공유산을 경험하였다.

인공유산 경험율은 연령집단별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증가하였다.

Ⅳ. 고 안

A. 조사대상 부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부인의 연령별 분포는 25~34세 연령집단이 전체의 55.5%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1).

이러한 연령분포는 젊은 층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전형적인 도시인구구조라 할 수 있으며 이들 25~34세 연령집단은 가장 출산력이 높은 연령층으로서 가족계획 사업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교육은 출산조절에 대한 태도형성과 가족계획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변수의 하나이다. 조사된 부인의 교육수준은 국민학교만 마친 부인이 과반수 이상이며(표 2), 중학교 이상의 학력은 전체의 19.5%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동지역 아파트내 가임연령의 유배우부인에 대한 조사⁵⁾에서 64.9%가 중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데 비하여 두 사회계층간의 현저한 교육수준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조사대상 부인을 통하여 집계된 남편의 교육수준은 역시 국민학교 졸업학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지만 부인에게서 보다는 대체로 높은 경향이었다(표 2).

거주사항에 있어서는(표 4) 조사대상 부인의 대다수가 10년미만 현재 장소에 거주해 온 신참 이주민이고, 농촌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도시의 생활 습성보다 농촌생활에 더 익숙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이 지역의 가족계획사업의 방법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조사대상 부인의 평균 현존 자녀수는 3.6명으로(표 6) 아파트 조사(3.1명), 1971년 전국조사⁶⁾ (3.0명) 결과보다 많으며 지금까지 가족계획사업의 실제목표가 3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조사부인의 53.5%가 이미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평균 0.6명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제특성으로 볼때 도시영세지역의 가족계획사업 대상 부인들은 출산력이 높은 연령층과 또한 많은 자녀를 둔 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체로 교육정도가 낮다. 또한 농촌출신의 이주민이 많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수입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러한 일반적인 특수성이 제반 가족계획실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B. 가족계획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루프나 먹는 피임약을 제외하면 평균 한가지의 피임법도 알고 있지 않다. 따라서 77%의 부인이 피임법 구입처로서 보건소를 알고 있는 사실은 루프나 먹는 피임약 보급처로서의 보건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남자불임술에 대한 소문의 70% 이상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왜곡된 지식이었음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또한 일반적인 피임방법의 사용이 모성건강에 유해하다는 84.5%의 비율과 함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피임법 사용에 결부된 이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사업의 보급에 있어서의 장벽으로서 보건교육을 통한 인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사업에 앞서 계획되어야 하겠다.

조사대상 부인들의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에 있어 82.5%의 찬성율은 1967년 영세민 조사에서의 75.5%에 비하면 높은 율이지만 동지역 아파트 조사결과의 95%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영세지역의 제특성과 함께 주로 낮은 교육정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다른 여러 연구와는 달리 교육정도가 전혀 차이를 만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표본의 크기가 작거나 고등교육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표본이 극히 적은데 그 원인이 있으리라고 본다.

가족계획에 대한 찬성율과 실천율의 차이는 후진국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⁷⁾ 본 조사의 결과로는(표 14) 폐경, 불임증, 임신중이거나 임신을 원하는 53.7%의 이유를 제외하면 피임이 필요하고 원하는 45%, 즉 전체의 34%의 부인에게 적절한 피임방법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피임중단 부인의 중단이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표 16) 부작용이 가장 중요한 중단이유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한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 부인 피임중단자의 약 39%가 부작용 때문에 피임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임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일반적 견해(표 13)와 함께 이러한 대다수의 부정적인 견해는 개인이 피임실천의 의도를 가지게 되어도 피임을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하

5) 유승훈, 정영숙의, "영세지역 아파트 주민의 모자보건에 관한 실태조사" 예방의학회지 제4권 1호 별책, 1971.10. P.79.

6) 국립가족계획 연구원, "출산력과 가족계획", 1972.9. 참조.

7) James T. Fawcett, "Psychology and Population" Population Council, 1970. P.98.

는 것이다.⁸⁾

따라서 개인 및 집단의 피임법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의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C. 이상 자녀수

이상 자녀수란 일반적으로 부인 자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는 가족의 크기로 그 부인의 출산행동에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녀의 수 및 성별에 대하여 전통적인 편협⁹⁾이 상당히 깊이 뿌리박힌 곳에서는 재생산이 끝난 부인의 실제 자녀수는 항상 이상 자녀수보다 많아지게 마련이다.

본 연구의 결과 조사대상 부인의 평균 이상 자녀수는 3.5명(표 18)으로 1967년 영세민 조사에서의 3.4명보다 오히려 많아졌지만, 이는 1965년 이래 3.9~3.6명으로 안정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적 경향과 같은 현상으로 생각된다.¹⁰⁾

정부는 1967년까지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1.5%선으로 감소시킬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재 두자녀만 낳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자녀가치 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데 관습적인 남아선호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딸만 둘 또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응답자의 추가출산 희망여부를 질문하였다. 딸만 둘일 경우 85.5%의 부인이 추가출산을 희망하였으며(표 20), 딸, 아들 한명씩을 두었을 경우에는 53.5%만이 추가출산을 희망하였다. 이것은 남아선호의 경향과 함께 두자녀 운동에 대한 보급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정도 별로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으나 더 교육받은 집단에서 두 자녀를 가졌을 경우의 추가출산 희망율은 적어지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다른 연구결과에서 서울 중심지에 거주하는 부인의 29%가 딸, 아들 구별달고 들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에 찬성한 데¹¹⁾ 비하면 저조한 찬성율이지만 표어에 대한 찬성보다는 실제자신의 경우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더 주관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D. 인공유산

인공유산 경험율의 증가는 지금까지의 출산력 감소에 기여한 바 크고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인공유산은 계속 증가의 추세에 있다.¹²⁾ 본 조사결과 34.5%의 대상 부인이 인공유산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967년 영세민 조사의 7%에 비해 현저히 증가된 것이지만 1971년 전국조사의 서중지역에 있어서의 인공유산 경험율 40%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본 지역에서도 인공유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끝자녀를 낳지 않았으나 출산했던 부인들의 경우 많은 수가 낳지 않는 임신에 대하여 69.5%의 부인들이 인공유산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던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공유산에 대한 찬성율(표 23) 및 인공유산 경험율은 교육정도에 따라 증가했던 여러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볼 수 없었는데 이는 전술했던 바와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층이 적거나 표본의 크기가 작았던 데 기인하는 것 같다.

종교집단별로는 기독교에서 인공유산에 대한 찬성율이 가장 높았지만(표 24), 실제 경험율에 있어서는(표 27) 가장 찬성율이 낮았던 불교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인공유산 경험율이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부인들일수록 증가했던 여러 연구결과에 비추어 경제적 곤란이 작아의 원인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상의 도시 영세민의 가족계획에 관한 심패를 벗기지 실태지수를 통하여 다른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표 28) 지역적으로 같은 서울에 위치하여 있으나 많은 차이가 있고 가족계획 실천율등의 지수도는 오히려 농촌과 유사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도시 영세민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은 지금까지 농촌에 집중되었던 노력이 이들 지역에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지역적으로 도회에 위치한 농촌¹³⁾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계획에 관한 보신교육이나 계몽에 있어서 집단토의 방법이나 개인적 상담등의 비공식적인 접근방법 및 전달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8) 이훈구, "피임중단행동의 심리학적 고찰" -인지적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노우트, 한국행동과학 연구소, 1972. 2 참조

9) 이종승, "남아호도와 가족계획: 한 심리학적 고찰", 연구노우트, 한국행동과학 연구소, 1972. 3 p. 68 참조

10) 문현상, 한성현, 최순, "출산력과 가족계획", 국립가족계획연구원 1972, P. 68.

11) S/K marketing Reserch Company,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Family Planing Communication in the R.O.K, Seoul Korea, 1972. p. 37.

12) Sung-bong Hong, Changing Patterns of Induced abortion in Seoul Korea, Seoul Korea, The Population Council, 1972.

13) Bom Mo Chung et al., "Modernity and Fertility Behavior in Korea in Psychological Perspectives" KIRBS 1971. Sep. p. 47.

이다.

또한 앞으로 이들 특수한 계층의 인구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로서 보다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8〉 여러 가족계획실태지수에 의한 지역별 비교

가족계획 실태지수	지역별 비교		
	본지역	서울 ¹⁾	농촌지역 ²⁾
가족의 크기(명)			
평균 생존 자녀수	3.6	2.7	4.2
평균 이상 자녀수	3.5	3.2 ²⁾	4.0 ²⁾
출산조절에 대한태도(%)			
가족계획 찬성율	82.5	98 ²⁾	95 ²⁾
인공유산 찬성율	69.5	90	86
출산 조절의 실태(%)			
가족계획 실천율	21	31	23
가족계획 경험율	40	48	43
부인당 평균 인공유산 경험 횟수(회)	0.7	1.0	0.8

1) 국립 가족계획 연구원, "출산력과 가족계획" 1972.9.

2) Bum Mo Chung, "Psychological Perspectives; Family Planning in Korea", KIRBS, 1972.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영세민의 가족계획에 관한 실태의 파악 및 연희지역 보건관리소의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을 위하여 1972년 8월 현재까지 본 보건관리소에 등록된 연희 1.2동의 영세민 중 20~49세의 유택부인 200명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 부인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별로 출산력이 높은 25~34세 부인이 전체의 56.5%를 차지하였고 68%가 종교가 없으며 교육정도는 문맹이 15%, 대학을 졸업한 부인은 없었다. 또 79.5%가 농촌출신으로 주요정보원은 라디오(68%)와 이웃(25.5%)이었으며 수입에 있어서는 무직이 16%, 일일 수입이 58.5%이며 25.5%만이 고정된 수입원이 있었다.
2. 평균 현존 자녀수는 3.6명으로 40대 부인의 평균 현존 자녀수는 5.6명이었다.
3. 각 부인들은 평균 2.3종류의 피임법을 알고 있었는데 루프와 먹는 피임약에 대하여서는 각각 87%의 부인이 부인이 알고 있었다.
4. 남자 불임술에 대하여는 78%의 부인이 들은 바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70% 이상이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5. 인공유산 피임법 사용률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장소였다(77%).

6. 가족계획에 대하여는 82.5%가 찬성, 12.5%가 경우에 따른다고 하였고, 5%가 반대하였다.
7. 전체 조사부인의 42.5%가 경제적 곤란 때문에 가족계획에 찬성한다고 하였고, 단점으로는 모성 건강에 유해하다는 대답이 84.5%로 가장 많았다.
8. 피임법을 한번이라도 사용해본 적이 있는 부인은 전체의 40%이고 현재 실천율은 21%였으며 방법별로는 먹는 피임약 복용자가 가장 많았다.
9. 피임법 사용중 중단한 일이 있는 부인은 전체의 23%로 그 중 73%가 부작용 때문이었다고 대답하였다. 이들 중단자의 71.7%가 임신하게 되었고 27%가 인공유산하였다고 나타났다.
10. 조사대상 부인의 평균 이상 자녀수는 3.5명이었고 만약 딸 둘을 가졌 경우 85.5%가, 딸 아들 한 명씩인 경우 53.5%가 추가출산을 희망했다.
11. 인공유산경험율은 34.5%로 앞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69.5%가 인공유산에 찬성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도시영세지역은 일반적 특성으로 보아 출산력 감소를 위해 가족계획사업의 가장 중요한 대상지역의 하나이다.
2. 본 지역의 가족계획사업은 적절한 보건교육을 통한 그릇된 인식의 시정 및 계몽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지역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의 적절한 접근방법을 발견하기 위하여 도시 영세지역 대한 사회심리학적 구가 필요하다.
4. 가족계획에 대한 의학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피임법에 대한 기술면에서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부작용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반응 및 그러한 정보의 전달과정에 대하여서도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Chung, Bom Mo et 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Family Planning in Korea",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 (KIRBS), 1972.
- Fawcett, James T., Psychology and Population, Population Council, 1970.
- Ferg, Sung Pong, "Changing Patterns of Indu-

- ced Abortion in Seoul, Korea", Seoul, Korea, The Population Council, 1971.
-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ociological Evaluation of the Family Planning Programs and Reseach Activities in Korea", 1972.
- S/K Marketing Research Company,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Family Planning Communic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1972.
- Yang, Jae Mo et al., The Final Report of the Gyeonggi-Yonsei Mothers Class Project", Center for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Yonsei University, Feb., 1972.
- 고 갑 석, Smith David P., "1968년 한국 부인의 출산력 및 가족계획실태조사 보고", 국립 가족계획연구소, 1970.
- 권 이 혁, "도시 영세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1967.
- 권이혁 외, "도시 인구조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1967.
- 김 모 인, 간호교육 지침으로서의 가족계획,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 연구소, 1971.
- 문 현 상, 한성현, 최순, "출산력과 가족계획", 국립 가족계획연구소, 1972.
- 양 재 모, 김모임(編), 간호교육과 가족계획-전국세미나 보고서-,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1970.
- 양 재 모, 김명호, 연세지역에 대한 보건기초조사, 예방의학회지, 제1권 제1호, 1968, 10.
- 양재모외, 한국 농촌사회와 가족계획,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6.
- 유승홍외, "연세지역 아파트 주민의 모자보건에 관한 실태조사", 예방의학회지, 제4권 제1호, 1971.
- 정 영 숙, "서울시내 보건간호원의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내 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ABSTRACT=

**A Study on the Family Planning Status of an
Urban Slum Population**

Roh, Soon Young

Dep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Ruth G. Stewart)

Despite the intensive family Planning program of the government, which has reduced the average population growth to 2.0 percent in 1970, the continuing high fertility rates and poor family planning services in urban slum areas has been continually pointed out by various evaluation seminars. Thus, it was felt that a study of the current status of family planning in an urban slum population was needed.

The aims of the study were to:

- (1) deline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slum population
- (2) discover the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of family planning.
- (3) determine what was felt to be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 (4) determine the status of induced abortion.

A random stratified sample of 200 women was selected from a population of 3,118 married women, 20-49 years of age, living in the Yonsei Community Health Project area and registered at the Yonhee Community Health Service Institute.

The respondents were interviewed by the investigator, using a pretested questionnaire, from the period of October 1 to October 30, 1972.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in the high fertility age group (25-34); of lower educational level (under primary School); from rural areas; and with unstable sources of income.
2. The average respondent had 3.6 living children.
3. Most of the respondents had knowledge of contraceptive methods such as the Loop(78.5%) and Oral pill (87.0%).
4. Seventy seven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cognized the Health Center as an available source for family planning.
5. About seventy percent of the respondents approved of family planning.
6. Eighty four point five percent of all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using contraceptives is harmful to maternal health.
7. Currently, 21.0 percent of the respondents were using contraceptives, while 40.0 percent of the respondents were current users or had used contraceptives.
8. Of the respondents who had ever stopped using contraceptives, 78.0 percent gave side effects as the reason they discontinued the method.
9. The average number of ideal children reported by the respondents was 3.5.
10. If they had only 2 daughters, 85.5 percent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ey must have more children.

11. Sixty nine point five percent of the respondents approved of induced abortion for unwanted pregnancies, while 34.5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induced abortion for unwanted pregnancies. The mean number of induced abortion for unwanted pregnancies was 0.7.
12.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such urban slum population would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target of the family planning services, therefore further social-psychological researches with technical development on this area are recommended.